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퍼스트넷(FIRSTNET) 긴급상황 대처자 네트워크 참여 발표

이 네트워크는 뉴욕주의 공공 안전 지역사회에 최첨단 무선 광대역 통신망을 제공할 예정

AT&T는 뉴욕주에 이 통신망을 무료로 구축, 운영 및 유지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긴급상황 대처자 및 공공 안전 지역사회를 위해 독점적으로 만들어진 전국 초고속 무선 광대역 통신망, 즉 퍼스트넷 긴급상황 대처자 네트워크(FirstNet First Responder Network)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T&T와 연방정부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진 이 통신망은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응급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통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첨단 기술 및 장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급상황 및 재난 상황에는 매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가 비상시에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뉴욕 주민들의 안전과 안보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뉴욕주가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얻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려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오대호부터 애디론덱의 외곽 지역 그리고 뉴욕시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전역에 공공 안전 지역사회를 위한 원활한 통신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의 독립 기관인 퍼스트넷(FirstNet)은 공공 안전 지역사회가 사용하는 통신을 현대화하는 첫 번째 전국 광대역 통신망을 개발, 구축 및 운영하고 소방서, 경찰서 및 응급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가 사용하는 통신을 강화하기 위해 911 위원회의 추천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래로 퍼스트넷(FirstNet)-AT&T 파트너십은 뉴욕주를 위한 통신 관련 실행 계획을 고안하기 위해 뉴욕주의 공공 안전 요원들과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AT&T가 뉴욕주에 보안이 뛰어난 무선 광대역 통신망을 무료로 구축, 운영 및 관리한다는 최종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또한 다음과 같은 뉴욕주의 독특한 통신 요구를 다루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애디론덱 같은 시골 지역, 건물과 지하철 시스템이 갖춰진 도시 지역, 그리고 오대호와 롱아일랜드 해협 같은 수로에서 통신 범위 확대
- 국경에 인접한 주들과 캐나다와의 원활한 조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향상
- 소규모 지역사회를 위한 통신 서비스 및 장치 비용 절감

특히 이 통신망은 뉴욕의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서비스(EMS) 및 기타 공공 안전 요원들이 서로 통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 1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타임스퀘어(Time Square)로 모이는 뉴욕시의 새해 전날 축하 행사, 매년 250만 명가량의 관중과 5만 명이 넘는 주자가 모이는 뉴욕시 마라톤(New York City Marathon),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맞이하는 2017년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와 같은 대형 행사를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응답하며,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일상적인 작업 처리 시 필요한 중요 정보에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연결
- 자연재해 및 응급상황 시 주 전역의 기관과 관할 구역에 있는 공공 안전 요원들을 위한 효율적인 통신 수단 마련
-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주 대도시, 시골 및 부족 지역 전역에 있는 긴급상황 대처자들과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뉴욕주 지역 전역의 통신 범위 강화
- 필요시 추가적인 통신 범위 및 지원을 위해 배포할 수 있는 전용 통신망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긴급상황 대처자들에게 제공
- 인프라 투자 유도 및 주 전역에 일자리 창출
- 긴급상황 대처자들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을 도입. 이 혁신은 공공 안전 애플리케이션, 전문 장치 및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포함하여 공공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인명 구조 도구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넥스트젠 911(NextGen 911) 전산망 및 스마트 도시 인프라와의 미래 통합에 관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Roger L. Parrino, S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특히 재난이나 응급상황 시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들과 중요한 정보를 통신할 때 더욱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공공 안전 광대역 통신망의 완성과 더불어 이 통신망이 긴급상황 대처자 지역사회에 필요에 따른 전용 접근권을 제공하는 능력을 발휘하길 고대합니다.”

긴급상황 대처자 네트워크 당국(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의 Mike Poth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퍼스트넷(FirstNet)으로 맞이하는 것은 저희 당국의 창설을 이끈 911 위원회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의 결정은 그레이트 뉴욕주에 보다 확장되고 강화된 통신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뉴욕시의 공공 안전 전용 범위를 제공하는 것부터 신뢰할 수 있는 초고속 무선 연결 통신망을 뉴욕주의 시골 및 외곽 지역에 가져오는 것에 이르기까지 퍼스트넷(FirstNet)은 통신망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법 집행, 소방서 및 응급의료서비스(EMS)를 위한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북동부 지역 AT&T의 Marissa Shorenstei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를 위해 봉사하는 용감한 여성과 남성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주지사님이 공공 안전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퍼스트넷(FirstNet)에 참여하는 것은 뉴욕주의 긴급상황 대처자들이 인명 구조 시에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들에게 혁신적인 최첨단 통신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인명 구조 해결책을 뉴욕주에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퍼스트넷(FirstNet)에 참여함으로써 이 서비스에 가입한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서비스(EMS) 및 기타 공공 안전 요원들은 필요시 365일 내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전용 접근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퍼스트넷(FirstNet)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퍼스트넷(FirstNet)이 공공 안전에 가져올 가치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FirstNet.go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